



2024.3.18.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90호

# 수도권 역차별을 넘어 세계적 변혁도시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조사연구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3월 18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Contents

01

02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02

04

미래대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03

09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및 분석

04

21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 ■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프로젝트 추진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선호미래연구'를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로 확장하고,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 '22년 강원, 경북, 대전, 전북, 전남,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지역주민 120명을 만나 미래대화, '23년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 이어 '24년에는 인천연구원,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추진
- 기존의 전국단위 미래인식조사를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구체적 미래상 파악에 중점
-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새로운 대안에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이를 해결할 경우 시민사회의 연대감이 강해질 수 있음

### ■ 인천시민이 선호하는 '변형사회'의 실현으로 혁신을 지속할 필요

- 시민들은 미래대화에서 변형사회를 상상하면서 인천에 혁신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음
-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주 시대를 개척하자는 의견, 로봇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에 지속 투자해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지역으로 발돋움하자는 시민들이 존재
- 시민들은 기술 분야의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
  - 인천이 국내에서 가장 다문화를 포용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거나 신도심과 원도심의 경제적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의 실행, 성별 임금 격차의 완화, 안전한 사회 구축, 환경문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

### ■ 인천시민들이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로 보존사회를 가장 많이 예측

- 이는 경제성장주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며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인천은 붕괴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 주목됨
- 시민들은 인천시가 경제성장의 지표에만 몰두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심화, 고립되는 가구의 증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 환경 파괴 심화 등으로 보존사회는커녕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함

### ■ 북한, 중국과 갈등은 인천의 미래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

- 인천시민들은 미래대화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중국, 북한과 심각한 갈등 및 대립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음
- 경제는 물론, 사회의 안전, 불안감,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
- 인천은 세계적인 물류 유통의 중심지여서 국제사회의 동향에 민감하며 이런 외부변수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시민사회의 위기 대응력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01

##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연구의 배경

-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프로젝트 추진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선호미래연구’를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로 확장하고,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 ‘미래대화’(Dialogues on Futures)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들이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지,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개념화
    - 유럽은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웅커 위원장의 주도로 2014년부터 유럽의회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하도록 권고
    - 이에 따라 2015년 53개 시민 대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실시되었고, 2019년에는 1200개의 미래대화가 시행, 5년 동안 유럽시민 26만 명이 미래대화에 참여, 140만 명이 이 대화를 지켜보았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박성원, 2020에서 재인용)<sup>1)</sup>
    - 싱가포르도 2015~2016년 시민 8,300명이 미래대화에 참여했고, 121개의 논의 주제를 만들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구상한 바 있음(박성원, 2020)
    - 해외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함(예컨대, Ortegon-Sanchez & Tyler, 2016)
  - ‘22년에는 강원, 경북, 대전, 전북, 전남,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지역주민 120명을 만나 미래대화를 추진(박성원 외, 2022)
  - ‘23년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박성원, 2023)

1) 유럽에서 추진한 미래대화의 결과는 2020년 발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발발로 연기. 대신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전략적 미래 보고서 (Strategic Foresight Report)’를 해마다 발표하면서 유럽시민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정책을 제시함

## ■ 연구의 목적

- 시민들이 예측한 다양한 미래의 모습과 바라는 미래를 조사
  -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2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논의
  -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에는 시민사회의 희망, 기대, 걱정, 우려의 요인들이 담겨 있음
  - 이런 요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역으로 새로운 미래의 도래를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이런 요인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됨
  
-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추진하는 '변화창조시민'(change agents)의 양성
  - 미래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 등 3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며 이 3각 체계에서 시민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정부와 전문가들이 원하는 미래라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들
  - 이런 점에서 '미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산물(마틴 셸리그먼 외, 2021)
  - 변화의 창조자이자 추진자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미래계획이나 비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정례화하는 정책 필요
  - 지역주민들과 미래대화는 시민 개인이 지역사회의 변화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 미래대화는 지역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의 실험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처럼 인천시민과 미래대화도 국회미래연구원의 독자적 연구 프레임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집단인 인천연구원, 지역정부인 인천시청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프로젝트
  - 국회미래연구원은 인천연구원 연구진을 대상으로 미래예측의 이론과 방법론, 미래대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에 대해 학습시키고 실습하면서 미래대화 준비
  - 시민과 숙의토론에서 나온 결론을 인천시와 공유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래와 희망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할 계획('24년 말까지)
  - 이를 통해 미래대화가 단순히 시민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주요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줌

## 02

## 미래대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 ■ 참여 시민 모집 방법 및 인구학적 특성

#### ○ 참여자 모집 과정

- 인천연구원의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인천시민과 미래대화'에 참여할 시민 모집
- 총 80명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56명 참여(소정의 교통비 지급)
- 2024년 1월 27일(토요일) 오후 1~5시까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 ○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구학적 특성(표1 참조)

- 미래대화에 참여한 인천시민은 남성(54%)이 여성(46%)보다 상회
- 연령대별로는 50대(30.4%)가 가장 많았고, 30대(23.2%), 40대(21.4%), 60대(19.6%) 순이었음
- 직업으로는 직장인(41%), 전문직(21.4%), 자영업자(12.5%)와 주부(12.5%) 순으로 많았음
- 거주지별로는 연수구(23.2%), 남동구(21.4%), 서구(17.8%) 순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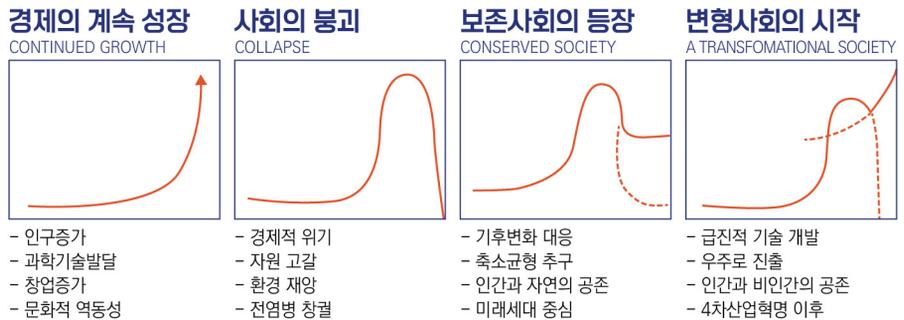
표 1 인천시민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 56명 답변) (순위별 정리)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남성(30명, 54%) 여성(26명, 46%)	50대(17명, 30.4%) 30대(13명, 23.2%) 40대(12명, 21.4%) 60대(11명, 19.6%) 20대(3명, 5.4%)	직장인(23명, 41.0%) 전문직(12명, 21.4%) 자영업자(7명, 12.5%) 주부(7명, 12.5%) 무직(3명, 5.4%) 학생(2명, 3.6%) 비공개(2명, 3.6%)	연수구(13명, 23.2%) 남동구(12명, 21.4%) 서구(10명, 17.8%) 미추홀구(8명, 14.3%) 부평구(5명, 8.9%) 계양구(3명, 5.4%) 중구(3명, 5.4%) 강화군(1명, 1.8%) 동구(1명, 1.8%)

■ 미래대화 진행 과정

- 사전 숙의자료 제공 및 미래인식 조사
  - 인천의 2050년 미래 가능성과 선호하는 미래 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행사 2주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사전 숙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하도록 요청
  - 사전숙의자료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한 미래전망의 주요 결과를 담아 다양한 미래변화의 요인을 설명(박성원 외, 2022)
    - 이 자료에 더해 인천연구원의 연구진은 인천의 맥락에서 변화와 전망을 분야별로 작성
  - 숙의자료를 읽은 참여자들은 4가지 미래상(그림1 참조)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인천의 미래’를 선택
    - 4가지 미래상은 국내외 미래학계에서 활용하는 예측방법론으로 다가올 미래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임(Dator, 2002; Park, 2018)
  - 사전 조사 자료는 ‘미래대화’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것과 비교해 시민들이 미래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변화가 있었는지 대조하면서 확인

그림 1 다가올 네 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동인들



(출처: 박성원, 2024)

- 숙의토론형 미래대화 진행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중장기 미래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 도출(표2 미래대화 프로그램 참조)
    - 총 12개 팀으로 참여자를 나누고 각 팀별로 인천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미래대화 촉진자(facilitator)’로 참여하고 논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그림2 참조)
    - 촉진자는 미래대화에 필요한 여러 질문을 제기하고 참석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 미래의 변화를 4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그림1), 지역사회가 4가지 미래사회 중 어느 미래로 갈 가능성이 큰지, 어느 미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숙의하면서 토론
  -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로 가려면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도 제안

**그림 2** 속의토론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인천시민들



**표 2**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프로그램

일정		내용
13:00~14:00(60분)	준비	회의장 준비 및 참석자 자리 안내, 참석자들과 라포(신뢰, 친밀감) 형성
14:00~14:30(30분)	오프닝	국회미래연구원장, 인천연구원 부원장, 인천시장 인사 및 축사 미래대화 소개 및 인천시 동영상 시청
14:30~14:50(20분)	세션1	인천의 과거와 현재에서 겪는 어려움 논의
14:50~15:10(20분)	세션2	미래에 겪을 어려움 또는 새로운 기회 논의 (전망을 도와줄 카드* 세트 제공)
15:10~15:20(10분)	휴식	
15:20~16:20(60분)	세션3	4가지 대안 미래 탐색 (그룹별 논의)
16:20~16:25(5분)	투표	4가지 미래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및 '미래세대까지 원하는 선호미래' 투표 및 토론
16:25~16:50(25분)	공개토론	4가지 미래 투표 결과 공개 및 토론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선택한 이유)
16:50~17:10(20분)	클로징	최종 설문 작성

\* 전망용 카드는 아래 <표 3>을 참조

- 미래전망에 도움을 주는 키워드 카드 제작
  - 미래대화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표
    - 이를 위해 미래 전망에 도움을 주는 키워드 카드를 제작하고 참여자들에게 나눠줌 (그림3 참조)
  - 키워드 카드는 관계, 거주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분야별로 2개의 키워드를 제시
    - 예컨대, 관계에서는 다문화 이주민과 1인 가족,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 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제시
    - 키워드는 증가나 감소, 확대나 축소 등의 방향성을 넣지 않고 제시해 시민들이 직접 미래를 예측하면서 방향성을 전망하도록 유도(미래예측의 연습)
  - 키워드 카드는 인천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 이 중 분야별로 2개씩 선정
    - 인천의 맥락에서 ‘신도심과 원도심의 생활수준 격차’나 ‘바이오, 반도체, 로봇산업 발달’ ‘수도권 역차별’ 등은 다른 도시와 달리 인천만의 변화를 나타냄

**표 3** 시민의 미래전망을 돕는 카드 내용(A, B 유형 구분은 특별한 의미 없음)

분야	A형	B형
관계	다문화이주민	1인 가족
거주환경	신도심과 원도심의 생활수준 격차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에너지	원자력 발전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누리호 발사 등 우주 기술 강국	바이오, 반도체, 로봇 산업
교육	계층 상승 기회	평생학습 시대
경제	수도권 역차별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 대체
정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통합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
국제	남한과 북한의 갈등	미국과 중국 전략적 경쟁

**그림 3** 미래대화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미래 키워드  
카드 예시

평생학습시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원자력 발전
인공지능의 사람 일 대체	남한과 북한의 갈등	바이오, 반도체, 로봇 산업
누리호 발사 등 우주 기술 강국	신도심과 원도심의 생활수준 격차	1인가족

○ 사후 조사의 분석

- 미래대화가 끝나고 참여자들은 자신이 예측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근거를 작성
- 연구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
  - 사전과 사후 의견의 차이를 조사하는 이유는 숙의토론형 미래대화를 통해 바뀐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해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함
- 참여자들이 제시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능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의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 이를 통해 인천시민 참여자들의 미래에 관한 희망, 기대, 걱정, 우려를 파악
- 조사 결과와 분석 보고서는 인천연구원과 인천시청과 공유하고 선호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미래정책을 논의하고 발굴할 계획(2024년 말까지)
  - 시민과 미래대화의 성공 요건 중 하나는 미래대화의 내용이 시민들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인천시의 미래 계획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연구기관 및 지역정부와 공유하는 것임
  - 이런 과정이 확립되어야 미래대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풀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음

## 03

## 인천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및 분석

## ■ 미래대화에서 밝힌 참석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인식

-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3단계 과정을 통해 미래 인식의 폭과 깊이를 심화
  - 1단계: 과거와 현재까지 지속하는 어려움 논의
  - 2단계: 20년 뒤의 미래를 가정하고 자유롭게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논의
  - 3단계: 주어진 4개의 미래상을 두고 토론하면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와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호미래'를 논의
  - 이 과정을 모두 완료한 뒤 시민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선택
- 3시간 동안 12그룹으로 나눠 총 56명이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해 분석
  - 시민들의 발언 내용을 겹따옴표로 묶어 인용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공유하기로 함

## ■ 과거와 현재까지의 어려움

## ○ 경제적 격차

- “경제적 침체로 소상공인 폐업 상태가 인천이 전국(17개 도시)에서 1위래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천지역 폐업자수는 12만2천403명(9.1%)으로 서울 15만4천655명(8.3%), 부산 12만4천747명(8.9%), 대구 6만7천427명(8.3%)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sup>2)</sup>
- “여성의 급여 수준이 남성과 많이 차이가 나요. 인천은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이 많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해요.”
  - 인천시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8.4%였음
  -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천에서 최근 5년 동안 성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음 (2018년 35.7%, 2019년 33.8%, 2020년 34.2%, 2021년 37.4%, 2022년 38.4%)<sup>3)</sup>

2) 윤상홍, (2023년11월15일자). 인천지역 소상공인 폐업률 9.1% '전국 최고'. 중부일보

-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서울에 집 산 사람들은 3배가 오르고 인천은 거의 오른 게 없고. 직장인은 그걸로 노후 바라보는데 괴리감이 커요.”

○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 “신도시는 지원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발전하고 구도심은 점점 더 격차가 심해져서 학교가 공동화 현상으로 아예 비거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은 아예 없거나 취약하고.”
- “2018년부터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각 구의 취약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된 건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 “최근에 친구들 만나러 부평구에 가 보면 주차 문제 엄청 심하고. 서구 검단은 겁나요, 집에 제시간에 못 돌아올까 봐. 약속도 그쪽으로 안 잡게 돼요.”

○ 돌봄문제

- “인천에는 고독사가 많아요. 저는 그게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2022년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고독사가 많은 지역에 속하며 2017년 이후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표4 참조)<sup>4)</sup>

표 4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4개 지역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평균	4.7	5.9	5.7	6.4	6.6
부산	6.4	8.5	7.5	9.4	9.8
<b>인천</b>	<b>5.4</b>	<b>7.5</b>	<b>6.5</b>	<b>8.5</b>	<b>8.5</b>
광주	7.2	7.2	7.8	8.2	7.7
충남	7.2	7.2	7.9	9.2	8.3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3) 김지혜. (2024년1월9일). 남성이 여성보다 38% 더 번다...인천 임금차별 심각. 경기일보

4)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6대 광역시별 비교표는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음. 통계청 2024년2월 기준으로 부산 인구 329만 명, 인천 300만 명, 대구 237만 명, 대전 144만 명, 광주 141만 명, 울산 110만 명.

○ 주거환경

- “인천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이 셋 다 비염에 걸렸어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에 살면 비염을 달고 산다고 하대요.”
-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너무 많고 치아의 부정교합도 환경병이라네요.”
  - 2023년 국민건강보험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조사 결과, 인천은 2018년 이후 소폭 감소세이나 6대 광역시와 비교해 가장 높았음(표5 참조)

표 5 아토피 피부염 환자 6대 광역시별 현황 (단위: 명)

광역시 (인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산 (329만 명)	44,589	50,606	53,083	52,745	51,569
<b>인천 (300만 명)</b>	56,958	57,375	55,779	56,867	<b>55,450</b>
대구 (237만 명)	38,177	40,520	41,801	42,628	41,200
대전 (144만 명)	35,472	37,150	36,289	37,530	35,299
광주 (141만 명)	25,553	26,137	27,494	26,673	24,697
울산 (110만 명)	18,177	19,458	19,234	17,284	16,296

(출처: 국민건강보험, 2023)

- “제가 공단 쪽에 가까이 살아요. 근데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서 밤에 악취 나는 거를 많이 뿜어내거든요. 환경 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 2023년 9월 환경부는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가 환경부 통합관리환경제도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낸 것으로 보고 개선 명령을 내림<sup>5)</sup>
- “인천에서 다들 사시면 사료 냄새 나거나 이상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특히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 2023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가을 폭염과 열대야에 악취까지 삼중고를 겪었고, 열대야가 이어져 창문을 열고 지내는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배출시간대에 악취가 진동한 것으로 확인<sup>6)</sup>

5) 박규호. (2023년9월15일). 인천 노현동 악취로 주민 불편 여전...“기준 초과, 개선 명령”. 인천투데이

6) 손민영. (2023년9월8일). 송도국제도시 가을 바람 타고 온 악취. 기호일보.

### ○ 안전: ‘범죄 도시’라는 이미지

- “하수처리장의 하수를 검사했는데 인천이 마약 검출량 1위였다는 소식이 있고요.”
  - 검찰청 2022년 주요 범죄 발생 자료에서 인천은 6대 광역시와 비교해 범죄발생건수 2위, 마약 사건은 1위, 음주운전이나 주거침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표6 참조)
  - 인천연구원의 안승현과 조성윤(2023)은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에서 방법과 치안 수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여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
  - 2022년 기준 인천시의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최근 5년간 계속 4등급을 기록, 미추홀구는 모든 범죄 유형이 가장 많이 집계
  - 연구진은 “도시재생 연계 테마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도시 경쟁력 평가체계 내 안전 관련 지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표 6 2022년 6대 광역시별 주요 범죄 발생 총건수 (단위: 명)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범죄발생 총건수	118,130	<b>91,182</b>	71,386	45,650	42,963	17,776
강력범죄(폭력)	13,660	<b>12,327</b>	8,772	6,188	4,913	1,994
마약(향정)	677	<b>1,433</b>	321	100	127	46
음주운전	4,432	<b>5,133</b>	5,580	2,359	3,607	1,381
주거침입	1,430	<b>1,409</b>	758	416	310	119

(출처: 검찰청, KOSIS에서 2023년12월18일 자료 갱신)

### ○ 문화시설

- “인천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같은 문화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를 데리고 갈 만한 장소가 부족해서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문화기반시설총람을 보면 인천이 6대 광역시와 비교해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문예회관은 많지만, 미술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표7 참조)
  - 인천연구원의 박찬운, 황지환(2023)은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 영종지역,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 송도국제도시가 타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물관의 경우 서구와 연수구, 영종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

표 7 2023년 6대 광역시별 문화시설 현황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공공도서관	51	58	44	25	27	20
박물관	32	30	17	15	13	10
미술관	9	5	4	5	14	1
생활문화센터	20	10	11	2	8	3
문예회관	12	12	11	5	8	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 ○ 기후·자연환경

- “여름철에는 인천이 바닷가와 가까워 도시에 대한 홍수, 침수도 엄청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인천에 9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개발해야 하는데 자꾸 훼손해 가면서 하니까 결국은 예산 낭비하면서 하천이 더 오염되요. 주민들하고 좀 상의해서 그대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 “하천 살리기 포럼에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인천이 갖고 있는 하천, 갯벌 이런 거에 대한 생태 자원이 풍부하데 개발할 때 전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오면 그걸 또 뒤엎었다가 다시 또 개발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이어요. 이번에 승기천도 또다시 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 인천 연수구는 2024년 승기천의 수질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와 협력해 2026년까지 제방 보강, 보행로 개선, 수질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인천녹색연합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시대에 승기천 하천변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하고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음<sup>7)</sup>

### ○ 국제관계: 북한, 중국과 갈등

- “인천이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시라지만, 사실은 바다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서 지낸 도시예요. 최근에 와서 1·8부두를 다시 개방한다지만 북한과 접경 지역이어서 북한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을 관두게 된 거는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여전히 지금도 불안감을 느껴요. 요즘은 ‘혹시 이러다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7) 출처: <https://greenincheon.org/?p=176025>

- “인천이 북한과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갈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인천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 “지역적으로 중국하고 교류가 많지 않으면 사실은 인천의 발전이 어렵잖아요. 동인천과 인천항은 거의 중국 사람들인데. 그 동네가 거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하고만 (교류)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 ■ 미래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새로운 기회

### ○ 돌봄·복지

- “저는 지금 미혼 싱글인데 사실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리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보고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을까? 걱정돼요.”
- “다른 지자체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도 많은데 인천은 적은 편.”
- “노인들을 어떻게 할지. 치매도 많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가정도 파탄. 눈에 보이는 노인만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려야 하는데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 안타까워요.”
-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정신건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케어가 되지 않아요. 되게 위험해요.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예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해요.”
-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해요.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공백이 생기고 늘어나 점점 무기력해지는. 공백이 5년 이상 늘면 그냥 아예 다 포기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 일하지 않겠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 ○ 주거·기후환경

- “최근에 인천의 송도도 그렇고 인천의 구월 2지구, 저희 바로 옆 1만 8천 가구, 1만 5천 가구.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일단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인천의 인구가 늘어났다지만 출산율은 최저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면 기존의 아파트나 주택의 공동화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 “지금보다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미래에 병원은 정말 약국을 드나들듯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 “홍수도 많이 나지만 가뭄도 많고. 20년 뒤에는 이게 더 극심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 같은 경우는 해수면에 대한 상승이 심해져요. 일본이 100년 뒤에는 없어진다고 얘기하듯이 인천도 마찬가지거든요.”
- “외국에서 해수면 상승 연구를 봤는데 인천의 저지대에 있는 지역들은 다 없어지고 계양산, 문학산 등 높은 지역들만 있더라고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 다문화사회

- “다문화 사람들은 저희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 같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저희 시민들이 도와주면서 지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서 인천이 좀 앞서 나가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 “러시아 연방 출신 친구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 500명이 드리니까 꽤 많죠. 근데 그분들과 우리하고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 “다문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역으로 인천시민들을 차별하지 않을까. 복지정책에서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복지가 더 많다 보니까 소외된 인천시민들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 오히려 그 밑에 있을까 봐.”

### ○ 격차 사회

- “부동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요?”
- “송도 쪽에는 다 소득도 높고 다 잘살고 가좌동 쪽에는 되게 살기 어렵고 주변에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도 없고. 다문화 학생 퍼센트가 30% 정도 돼요. 점점 저소득층만 유입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빈부 격차가 심해져서 2040년에는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 ○ 일자리와 평생학습

- “반도체랑 로봇 산업, 인천에 유진 로봇도 있고. 그리고 연세대에서는 ‘나이버트’라고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양성 과정이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들어올 거고 그 부분을 인천에서 투자해서 잘 키워나가면 인천만의 힘이 되지 않을까요?”
- “평생학습이 인천의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인천의 복지센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인천이 발전할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인천시에서 하는 고령사회 대응센터가 있잖아요. 자주 다니면서 학습하는 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수업이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수업으로 공동체도 형성하고, 내가 배워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 ○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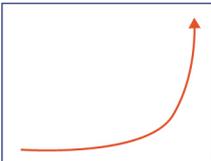
-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게 인천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큰 시너지를 내면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 “인천도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의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그곳에서만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해서 부각시키면 어떨까요?”
- “국제도시가 잘돼서 외국인 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이 있고 그래서 인천이 계속 발전하고 경제와 인구가 모두 성장할 것.”
- “로봇 산업은 인천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가트렌드 산업이라 이게 인구가 100명 들어올 게 아니라 진짜 만 명 단위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라.”
-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산업체에서 채용할 때 가족들도 오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듯.”
- “서울과의 교통 근접을 해결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나 첨단 시설들, 의료 기반이 돼 있고 교통이 가까우니까 인천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 ■ 다가오는 4가지 미래와 인천시민들의 인식

#### ○ 인천은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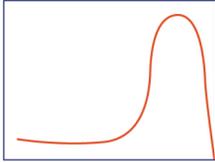
- “제가 작년하고 올해 항공 우주 체험 캠프를 했어요. 그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당찬 꿈을 얘기해서 놀랐어요.”
-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는 세상이 분명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탄 드론을 어디에 주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드론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해매지 않을까요.”
- “인천이 인천공항이라는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위성도 쏘잖아요. 그게 잘 되면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기술 쪽으로 좋을 것 같아요.”
- “노년 인구가 많아질 텐데 노인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기회가 왔으면.”
- “일자리를 소위 로봇에 많이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계층 상승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게 또 안 좋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인공지능’ 단어만 들어도 암울해요. 인공지능 얘기 들면 그냥 괜히 인간을 배척하는 것 같아서 암울해요”
- “인간의 몸에 칩을 넣어서 건강 관리, 바이탈 체크, AI로 유전자 변형도 가능하고, 신경 조절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는 거지. 결국, 개인 위주로 사회가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공정한 분배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으쌰으쌰할 수 있는 정신이 중요해요.”

#### 경제의 계속 성장 CONTINUED GROWTH



**사회의 붕괴**

COLLA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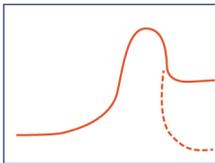


○ 인천이 붕괴의 미래로 가는 것은 아닐까?

- “부평에 살 때는 공단 공해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공해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또 연수구 쪽에서는 남동 공단 쪽에 공해가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 “저는 NGO 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들과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전보다 점점 어려워졌어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 “저는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 가라. 빨리 도망쳐라’”
- “제 주변 분들도 문화예술인들은 인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일을 할 수 있는 서울로 나가게 됐다고.”
- “요즘에 덩크(Double Income, No Kids)가 아니고 ‘싱크’라고 해요. 싱크는 혼자(Single) 벌고 그냥 애 안 낳고 산다.”
- “중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2035년까지 3.6배 증설하고 석탄 발전소를 168기 짓는다고 한 대요. 중국이 강대국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처지가 크게 얘기를 못 해요. 인천이 중국과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인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사고 하나만 터져도.”
- “인천에서 계속 마약 거래가 이뤄져서 내 이웃이 마약 범죄자나 마피아면 인천을 떠나지 않겠어요?”
-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양극화가 앞으로 2040년까지 더 심해지면 인천은 붕괴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고립되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 더 빨리 붕괴.”
- “미국이랑 중국이 박 터지게 싸우면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천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데, 붕괴되지 않을까.”

**보존사회의 등장**

CONSERVED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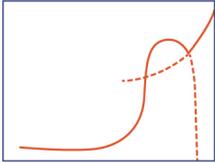
○ 인천은 보존사회로 진입하는 것인가?

- “갈수록 기후변화처럼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고 할 듯.”
- “아빠가 서울로 출퇴근할지언정 우린 여기에 살 거예요. 30~40평대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인천뿐이니까, 우린 못 떠나요.”
- “인구는 보존사회처럼 더는 증가하지 않겠지만 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과 함께할 것 같아요.”
- “인간이 AI 로봇을 지배할 수 있게끔 우리는 지역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독서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생태 환경은 지금이라도 한계를 넘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이 미래가 되지 않을까요. 또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고 친환경 인증을 한 기업에서 나온 물품만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어요.”

- “영종도나 섬 있죠. 그쪽을 슬로시티, 휴양지, 노년층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콘셉트의 도시로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런 산업에 치중할 경우 인천은 보존사회라는 미래로 갈 것 같아요. 미국에 플로리다주가 있는데 잘살아요. 휴양지로도 되게 좋아요. 근데 성장을 하질 않아요. 그냥 슬로시티. 근데 그걸 원하시는 분도 인천의 중장년층 중에 많아요.”
- “무분별하게 계속 발전만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사람이 쉬어야 되잖아요. 좀 쉬면서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 전환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 “요즘에는 환경도 고려하고 개인들도 옛날처럼 자기를 갈아 넣기보다는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자기의 여가나 개인의 라이프도 중요해서 보존사회로 갈 것 같아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를 30% 이내로, 그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게 한다면 보존사회가 될 듯 합니다.”
- “‘내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어’라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 채워준다면 아이 출생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 변형사회의 시작

A TRANSFORMATIONAL SOCIETY



#### ○ 인천은 전례가 없는 변형사회가 될 수 있는가?

- “인천만의 시범 사업으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 인천에 들어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 “인천에서 우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 인천우주공항이 되면 비약적으로 발돋움할 것 같아요.”
- “강화군에는 카페 로봇이 서빙도 해주고 배달해 주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계시고 부담감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 “메타버스 시대가 근접한다면 우리가 온라인상의 아바타로 생활할 것 같아요.”
- “보통 70세가 넘으면 아프신 분들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만약에 뇌의 어딘가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말을 못할 경우에 뇌에 칩을 넣으면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료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요?”
- “송도에 K-바이오산업 센터가 생기면 정말 거기서 뭔가 강력한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될 것 같아요. 또 폐기물이나 화학물질을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다면 인천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 “청라에 국립생물자원관이 있거든요. 생물종을 다 연구하고 보관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종을 발견하다 보면, 진짜 인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종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왕래도 하고,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으로 와서 살고, 또 거기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든가 자원이 인천으로 바로 와서 그걸 활용한다면 변형사회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 ■ 모든 토론을 마친 후, 인천시민들의 미래 선택

- 과거, 현재, 미래의 기회와 위협의 토론, 4가지 미래 가능성과 선호도를 논의
  - 시민들은 3시간의 토론을 마치고 각자 무기명 투표에 참여
- **‘이대로 가면 맞이할 인천의 미래’에서 보존사회가 63%로 가장 높게 선택**(표8 참조)
  - 이유로는 “기후변화 등 세계적 상황이 심각해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 “성장의 한계 시대에는 일보후퇴가 필요”, “생산인구의 부족, 과도한 규제, 낮은 연구개발 참여 때문”, “사회에서 각종 갈등이 분출될 것”, “각자도생의 미래가 지속할 것이기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극단적 개인화 때문”, “인구감소, 기후위기, 팬데믹에도 붕괴까지는 가지 않고 회복탄력성이 있을 듯”, “느린사회의 도래가 예상”, “교통신프라와 수도권으로 올라온 인재들 덕에 유지는 될 듯” 등을 제시
- 보존사회의 도래 가능성은 미래대화 이후 증가했음
  - **사전조사에서 54.6%였으나 사후조사에 63%로 증가**
  - 사후설문 조사에서 보존사회로 의견을 바꾼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인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토론을 통해 마냥 성장만 추구할 수 없는 환경 문제, 인구 감소 추세, 경쟁도시의 출현 등으로 보존사회의 가능성을 크게 인식”, “사전조사에서는 인천의 쇠퇴 가능성을 크게 봤지만 토론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위기에 강하다고 믿게 되어 붕괴보다 보존사회를 택함”, “대화를 하다 보니 보존사회의 가능성을 달리 보았음” 등의 의견을 제시
-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는 변형사회가 66.7%로 가장 높았음**(표8 참조)
  - 그 이유로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 “과거의 성공과 다른 방법으로 재도약하기를 바라고 때문”, “다문화사회의 혁신적 전환 필요”, “토론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느꼈고,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기에”, “인공지능로봇과 친구가 되는 미래가 좋아서”, “미래대화를 통해 인천의 잠재력을 느껴서”, “인천만이 유일하게 육해공으로 사람과 물류를 움직이기 때문에”,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회를 기대” 등을 제시

- 변형사회의 선호성은 미래대화 이후 증가했음
  - 사전조사에서 60%였으나 사후조사에 66.7%로 증가
  - 사후설문 조사에서 변형사회로 의견을 바꾼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미래대화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는 아직은 가능하기 힘들고 우려되는 요인들이 있지만 도약하려면 필요한 변화임을 깨닫고 변형사회를 선택”,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할 것 같아서”, “이민청, 재외동포청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가 들어와야 할 것 같아서”, “대량생산과 소비의 양적 팽창만 성장을 견인하지 않고 세대단절, 지역단절, 계층단절을 극복하면 더 좋은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음”,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중심을 반성하면서 약간의 정체를 갖는다면 변형사회가 올 수 있다고 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변형사회의 믿음이 생김” 등의 의견을 제시했음

표 8 사후 미래 선택(56명이 참여했으나 2명은 표기 오류 및 무응답으로 제거)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7.4% (4명)	11.1% (6명)
사회의 붕괴	14.8% (8명)	0% (0명)
<b>보존사회 등장</b>	<b>63.0% (34명)</b>	22.2% (12명)
<b>변형사회의 시작</b>	14.8% (8명)	<b>66.7% (36명)</b>

## 04

## 정책적 시사점

### ■ 인천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보존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 역사적으로 인천은 국내 최초의 타이틀을 다수 보유<sup>8)</sup>
  - 1883년 인천이 개항하면서 일본과 청나라, 서구 열강의 사람과 물자들이 밀려들어와 당시 조선에서는 신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음
  - 짜장면, 쫄면, 닭강정은 인천에서 탄생, 최초의 서양식 호텔, 최초의 철도(인천 제물포와 서울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 1899년 9월18일 완공), 축구도 인천을 통해 들어왔으며 성냥공장도 인천이 최초
  - 1902년 최초의 이민선 갈릭호가 한인 101명을 싣고 제물포항에서 출발해 공식 해외 이민 1호로 기록, 이곳에서 하와이로 정착한 교포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흘린 땀으로 번 돈을 고국에 공과대학을 설립하라고 성금, 그 결과 인하대학교(인천과 하와이 첫 글자를 따서 작명) 설립

### ■ 인천시민이 선호하는 ‘변형사회’의 실현으로 혁신을 지속할 필요

- 시민들은 미래대화에서 변형사회를 전망하면서 인천에 혁신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음
  -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과 우주 산업 관련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거나 우주체험형 전시관, 로봇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에 지속적 투자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지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
  - 시민들은 기술 분야의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
    - 인천이 국내에서 가장 다문화를 포용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거나 신도심과 원도심의 경제적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의 실행, 성별 임금 격차의 완화, 안전한 사회 구축, 환경문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

8) 다음 웹사이트에서 발췌: 백오십년째, 첨단도시 인천 이야기. <https://brunch.co.kr/@demory/92>

### ■ 보존사회의 높은 가능성은 경제성장주의에 대한 경고로 해석

- 인천시민들이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로 보존사회를 가장 많이 예측
  - 이는 경제성장주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며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인천은 붕괴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 주목됨
    - 시민들은 인천시가 경제성장의 지표에만 몰두할 경우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심화, 고립되는 가구의 증가, 기후위기의 대응 실패, 환경 파괴 심화 등으로 보존사회는커녕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
  - 시민들의 다음 의견은 주목됨: “미래세대의 희생은 전제로 현세대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면 인천은 장차 퇴보할 것”, “근시안적 경제발전지표는 붕괴사회의 도래 가능성을 높일 뿐”, “인천시의 정책들이 신도시 위주로 비취지는데 다른 지역에서 바라고 있는 요구들을 정부가 많이 놓치고 있음”

### ■ 북한, 중국과 갈등은 인천의 미래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

- 인천시민들은 미래대화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과 갈등 상황으로 치달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는 물론, 사회의 안전, 불안감,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
  - 인천은 물류거래의 중심지여서 국제사회의 동향에 민감하며 이런 외부변수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시민사회의 대응력 향상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 (2023년 8월 14일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에 맞는 치료가 중요. 보도자료.

**마틴 셸리그먼 외.** (2021). *전망하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 김경일, 김태훈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박성원.** (2020).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외.** (2022).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2023).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75호,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2024). 2040년 서울의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동향과 전망* 120: 89-123

**박찬운, 황지환.** (2023).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 인천연구원

**안승현, 조성윤.** (2023).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Dator, J. (Ed.).** (2002). *Advancing Futures: Futur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Connecticut & London: Praeger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From Local to European: Putting Citizens at the Centre of the EU agenda*

**Ortegon-Sanchez, A. & Tyler, N.** (2016). Constructing a Vision for an 'Ideal' Future City: a conceptual model for Transformative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13: 6-17

**Park, S.** (2018). A possible metric for assessing self-efficacy toward postulated futures. *Foresight* 20(1): 50-67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http://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http://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